

#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삼성전자 주도력 약화가 KOSPI에 준 선물

- KOSPI 2,500선 회복 시도, 불안심리 완화, 반도체, 2차전지 반등의 힘
-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레벨다운 = 다른 업종 시가총액 비중 상승, 주도력 역전
- 25, 26년 실적 개선/주도력 강화 업종들 영향력 확대, KOSPI 반등/상승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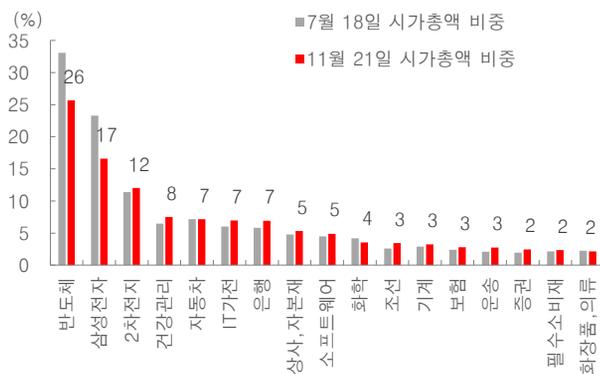
장 중 2,400선까지 이탈했던 KOSPI가 2,500선 회복/안착 시도 중이다. 과도했던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급락했던 반도체와 2차전지의 반등이 KOSPI 정상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급반등이 KOSPI 저점 탈출에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5만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OSPI 반등세는 지속되었다. 삼성전자 주도력 약화가 오히려 KOSPI의 안정적인 반등을 가능케한 것으로 본다.

8월 이후 KOSPI의 지속된 부진의 중심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약세, 주가 레벨다운이 자리한다. 7월 32%를 상회했던 반도체 시총 비중은 현재 24% 이하로 레벨다운되었고, 삼성전자 시총 비중도 23%에서 16%이하로 급락했다. 이처럼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도력 약화,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KOSPI 부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반도체 주도력 약화 이후 반도체 하락이 제어될 경우 KOSPI 상승세는 가능하다.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 하락이 다른 업종들의 시가총액 비중 상승을 야기함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0년 5월 ~ 11년 4월과 21년 3월 ~ 6월이다. 두 경우 모두 실적 개선 주도력,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반등을 주도했다. 반도체 반등이 가세한 2010년의 경우 1년 동안 KOSPI는 41% 상승했다. 21년에는 반도체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KOSPI는 11% 반등했다. 반도체 주도력 약화 과정이 KOSPI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지, 주도력 약화 이후에는 또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은행,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조선, 기계 등 대부분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이들 업종 중 다수가 이익 주도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년, 26년 영업이익 기여도가 개선되고, 이익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조선, 기계,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 중국 소비주가 있다.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과 유럽/중국 경기회복 가시화되면서 이들 업종이 KOSPI 반등, 상승반전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등이 가세한다면 예상보다 강한 KOSPI 반등/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16%대로 레벨다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금융, 인터넷 등 시가총액 비중 상승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